



나여경

어제는 밤새 애인과 달콤한 밀어를 나눴습니다. 그는 까칠하고 나쁜 남자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나 자기실현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이 나쁜 남자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저를 어쩔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울 때만 자유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줍니다.

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전 생애를 바쳐 몰두하는 그 정열이 아름답습니다.

열정을 다해 제 삶을 살아 본 기억이 없는 제게 이 나쁜 애인은 상당히 유혹적입니다.

또 다른 애인 그리스인 조르바. 주위의 이목을 의식해 조잡하게 형성한 거짓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려있던 차에 제게 찾아온 조르바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매력남 조르바와 공자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이상을 향해 앞만 보고 가는 이들 속에서 그

당신의 애인은 몇 명입니까?

남정네는 빛을 발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르짖는 남자입니다. 차가운 가슴과 현혹적인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막음을 추며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호탕한 인물, 그의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들을 일주일 전에 만났던 저 역시 도덕적이지만 감성이 풍부한 양과 같은 또 다른 남정네와 비교해 봅니다.

제 음흉함을 누가 알까요. 관념적으로 왜곡시킨 시에 매달려 있던 제게 조금조금 시에 빚든 세상사를 들려주는 남자, 그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역시 손을 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사냥감을 쫓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것은 너무 빨리 달리면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길 위에서 헤매게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따라오지 못할 만큼 혼자서 앞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 영혼을 길에서 헤매게 만들었고 지치게 만든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애인은 시인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대기는 내 책을 펼쳤다가 다시 닫고, 포말로 부수진 파도는 바위에서 웅성웁니다.

남아가커라, 온통 눈부신 책장을 이어!

남자, 책속에서 만나다

시를 들으며 잃어버린 제 영혼을 찾고 싶습니다. 그가 자본지분 돌려주는 시는 값이 없는 생각의 나눔으로 헛배 부른 일상을 치료해 줄 겁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 애인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럴지만 누구와 어디에 있다가도 제가 부르면 등장 달려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취하고 사상에 젖어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창에 희뵤한 새벽이 진을 칠

때쯤 잠들곤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실. 사랑이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욕망도 커지는 것이 사랑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해 사랑의 꽃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책 속에서 만나는 애인은 퍼내도 퍼내도 솟아나는 지혜와 기쁨을 주는 화수분 같습니다.

돌아서면 허기질 맛없는 말의 성찬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또 다시 남루한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한 세상.

바람이 불니다. 그 속에서 아픈 영혼들은 추억이 될 수 없는 상처들을 곱씹으며 가슴을 쓸고 있겠지요. 바야흐로 이 브롬팡의 고엽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산 아래 박힌 바위처럼 변하지 않을 마음으로 스산한 가슴 보듬어 줄 애인을 당신은 몇 명이나 갖고 있습니까? 소설가



짜짜라기에 충분했다. 산책하는 공원에서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했다. 한편 부서서서는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용객들이 먼저 앞장사야 하겠다. 권옥선(대원1동)



선옥의 1000자 지혜 65

달인

어떤 한 분야에서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달인(達人)이라 부른다.

TV의 한 프로에서도 종종 달인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달인이란, 바로 학술이나 기예에 능하여 신의 경지에 가까운 훌륭한 재능을 가졌거나, 널리 사물의 도리에 통달한 사람 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기능을 보고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지만, 그들이 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선불리 달려들고 도전하다 우스운 꼴이 되기도 한다.

송(宋) 나라 소동파(蘇東坡)의 말이 생각난다. "남쪽 지방에는 목숨에 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날마다 물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입끝 살이 면 물에서 걸을 수 있고, 열 살 이면, 물 위에 뜰 수 있고, 열다섯 살이면 능히 잡수할 수 있다. 잡수하는 것이 어찌 마음대로 쉽게 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물의 성질을 터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그래서 날마다 물과 함께 지내기를 적어도 15년쯤 하다보면 겨우 그 성질을 터득하는 것이다."

날 때부터 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장성하여서도 배를 보고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쪽 지방의 용감한 사람이 남쪽의 잡수하는 사람에게 물에서 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고 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나 모두 북쪽 사람이 잡수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우리가 해업을 어떻게 친다는 설명만 듣고 물에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달리 방법이 있을 수도 없다. 기본적인 요령만 설명

할 수 있을 뿐 체득한 자기의 참된 기술은 전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설명하거나 책으로 설명한 내용은 꼭히 기초적인 뿐이 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은 역시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눈을 감고도 눈을 뜬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밥을 먹 듯, 습관처럼 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은 물론 자기만의 방법을 스스로 얻어야 할 것이다.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현재 지자체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비장애인 차량들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에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들이 대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민원이 되

고 있다.

원래 이 주차지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 표지가 있다해도 장애인에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비장애인이 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는데도 '주차가능' 표지만 부착해 주차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패적인 공원 만들기 최선

평화공원 애완전 동반출입에 대한 우암1동 김재우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공원 내 애완전 동반 출입 시에는 애완전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 처리용기를 소지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애완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패적인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시 지역경제대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의재 (지역경제과)

■독자의 시

10월에는

내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던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생각하고 싶다.

발하는 소름소름 빛나는 발들 세듯이 깊은 계곡 틈새 곁에 핀 송이 꽃 순수한 사람들은 만나고 싶다

국화 향기처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보고 싶다.



박종운

문현2동

■나의 생각

당신은 179를 아시나요?



최민호

돈없이 부산남구주민들에게 179를 아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남부경찰서 방법순찰대원(의경)으로 군복무중인 나는 순수한 호기심에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답변은 물론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라서 가지각색 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은 내가 입고 있는 경찰 제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112나 119와 같은 긴급전화번호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훌륭한 추측이나 옳은 답안은 아니다. 하지만 179란 숫자가 남구주민들에게 낯선스 퀴즈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숫자로 인식되는 것은 내심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179는 바로 용당동에 소재한 남부경찰서 방법순찰대를 지칭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문현, 용암, 용호, 대연, 광남, 광민 등 남구의 동네 골목골목을 매일같이 쏘다니고 남구에 행사가 있을 땐 차량통제나 질서유지 임무를 하고 있는 179방순대원들이 주민들에게만 단순히 '경찰' 혹은 '거러' 호명하고 실천하여 꼭 이루어 내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

문현동의 금융개발은 먼저 홍보를 해야 한다. 부산시민, 관계기관이 마음을 모으는데 중심을 두고 종교, 문화, 경제, 사회안전과 정부기관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 지구력을 가지고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국제회의 개최 등을 고려, 호텔포함 다용도 복합건물 설계가 되어 80층을 100층 이상으로 변경 국제적 흐름을 타고 금융의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아시아로 세계화로 금융인들이 찾아 오고 가는 미래에 앞도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용호지역의 자연과 대연지역의 문화와 문현지역의 경제권이 융합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구주민은 관계인들과 협조하여 위의 사업목표를 기획하고 실천하여 꼭 이루어 내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살며 생각하며

자연·문화·경제 융합하여 삶의 질 높여갈 때



박노걸

남구는 바다와 산을 볼 수가 있다. 2009년 내가 찾아가 남구 이기대 동생달에서 산책길이 시작되는 해안 절벽아래로 걸으면서 바다와 산을 그대로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장자산 큰고개 바닷가까지 공사중이었고 2010년에는 오륙도SK아파트까지 완공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용호만으로 흘러 들어오는 용호천과 대연천은 오염으로 발생하는 악취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여름에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한다. 정화목적의 수단으로 현재 남구 하수처리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수를 정화시킨 물을 이기대 앞바다로 보내고 있는데 그 물을 맑은 바다로 보내지 말고 용호천으로 보내 흐르게 하면 자정현상이 생길 것이고 폐수 찌꺼기를 태워서 나오는 가스는 그냥 태우거나 공간으로 보내지 말고 인근 주민에게 공급하여 재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에 그만큼 절감된다는 생각이다. 또한가지는 용호천 상류로 백운포에서 바닷물을 공급하여 흐르게 하는 것이다.

대연천의 경우는 관안대로 앞쪽의 물을 끌어와서 박물관 옆 하천으로 흐르게 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에 오수가 폐수에 섞여 흐르지 않게 차벽 시설을 점검 보완하여 차벽이 완벽하면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하수관리는 풍상시 모든 하수관로에 대한 초기공사 예산 투입이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후 뎀질식 보완작업이 없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공사자의 책임을 묻는 법률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2009년 12월부터 부산지방해양청에서 20억 예산으로 용호만 준설공사기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거 대연천 준설을 한 경험이 있는 GS건설과 중앙건설사의 자료도 도움을 받아 맑은 바다를 만듦에 있어는 작업에 활용돼 주고 자연에 대한 모든 공사는 민관협력하여 경협이 자료로 축적되는 연구보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황령산 편백숲 황령터널 위 비탈에는 30년생 수심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건강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지킴이로 푸르게 팔찌기를 덮고 있었다. 산, 바다는 늘 찾아가면 즐거움과 건강을 지켜주므로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교통관광 편의시설 연계필요

대연동에는 부산 박물관, 유엔

공원, 평화공원, UN조각공원, 수목원이 모여 있어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 자연을 같이 만나게 된다.

2009년 9월에는 71억의 예산으로 옛 차량등록 사업소 자리 3,25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예술회관이 지어지고 각 분과 예술인 사무실과 소극장, 전시실로 꾸며져 다목적 공연장으로 쓰여진다고 한다.

그 부지 건너편 부경대학교는 주민과 학교를 가로 막았던 우중충한 담장이 공사비 95억 예산으로 허물어지고 자연석 배치와 나무로 만든 울타리 가로수와 학교 내 숲과 실습농장의 생태가 길을 걸으면서 시골길과 도시의 문화가 함께 하는 기쁨을 느꼈다. 공사 관계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공사가 진척되면서 주민과 학생 간 더 가까워 졌다고 하며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 일반, 공기관, 주거지역까지 답장을 하려면 이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만동으로 이어지는 북항대교는 웅장한 꿈이 현실로 다가옴으로 영도 남구의 문화경제가

같이 가는 것이다. 북항 재개발이 대교와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하고 부산도시철도가 추진될 때 용호, 감만, 우암, 문현, 대연, 남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북항지역과 영도까지 연결하여 미래의 관광지역으로 도심을 개발하였으면 한다.

문화 경제는 역사와 동행

문현동의 금융개발은 먼저 홍보를 해야 한다. 부산시민, 관계기관이 마음을 모으는데 중심을 두고 종교, 문화, 경제, 사회안전과 정부기관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 지구력을 가지고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국제회의 개최 등을 고려, 호텔포함 다용도 복합건물 설계가 되어 80층을 100층 이상으로 변경 국제적 흐름을 타고 금융의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아시아로 세계화로 금융인들이 찾아 오고 가는 미래에 앞도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용호지역의 자연과 대연지역의 문화와 문현지역의 경제권이 융합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구주민은 관계인들과 협조하여 위의 사업목표를 기획하고 실천하여 꼭 이루어 내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

시인·용호1동